

#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과 홋카이도의 겨울풍경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작년에 삿포로 눈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기회는 있을테니까'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오도리공원을 가득 메우던 설상도, 관광객들도 이번 겨울에는 자취를 감췄고, 불과 1년 사이에 '이벤트가 열리지 않는 일상'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이맘 때의 삶의 모습도 지금과는 달라져 있겠지요?

## 한국 총영사 홋카이도청 방문



제 20대 주삿포로 한국총영사로 취임한 배병수 총영사는 2월 9일, 홋카이도청을 방문하여 스키 지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배병수 총영사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전세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제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향후 두 지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홋카이도의 스키 지사 또한, 코로나19가 유행한지 벌써 1년 이상이 지났지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어 양국 간의 교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소망과 함께 양국의 인연을 소중히 해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홋카이도-경상남도 온라인 사무협의

2월 18일, 홋카이도청 국제과는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실무진들과 온라인 사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 우호제휴를 체결한 홋카이도와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미니배구를 통한 민간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관계를 돈독히 해왔으며, 올해 교류 15주년을 맞이합니다.

금번 사무협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워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등을 활용한 교류와 상호 지자체 홍보를 지속해 가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필수!

홋카이도에서는 다소 독특한 형태의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형 신호등은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 신호등이 눈의 하중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물론, 가로 형태의 신호등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면 도로 곳곳에 화살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바네'라 불리는 이 화살표들은 도로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쌓여 도로의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 운전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에 갇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이 오기 전 미리 타이어를 교체해 두고, 차 안에는 방한용품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담요와 장화, 침낭, 핫팩 등의 방한용품 외에도 비상식량과 마실 물, 간이 화장실을 준비해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방재용품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마트나 잡화점 등 여러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평소부터 재해 대비를 철저히 해둘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청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해 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만화들이 영어/일본어 버전으로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만화 리플렛



## 원자력발전소 방재훈련

홋카이도에는 삿포로에서 약 70km 떨어진 도마리무라(泊村)에 도마리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홋카이도에서는 매년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인 니세코초와 굿찬초는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할 뿐더러,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2020년 10월) 방재 훈련은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훈련 당일 피난소 관계자와는 각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피난소의 모습]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역기]

모의 훈련에서 피난소 관계자와의 실시간 의사소통은 통역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6개국어 정도를 테스트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어로 안내 사항을 전달할 때에는 경어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간략한 문장구성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기기가 이를 정확하게 전달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피난소에서 사용되는 골판지 침대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성인 9명이 함께 앉아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1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보온 효과가 좋고, 조립과 해체도 간편하며 사용 후에는 박스 모양으로 접어 추후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침대 주변에는 골판지 칸막이를 세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홋카이도의 겨울 풍경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제 72회 삿포로 눈축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눈축제 소식을 대신하여, 이번호에서는 홋카이도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겨울 풍경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설 도구 판매 코너]

가을에 접어들면 동네 마트에서도 제설 도구들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제설모래함]

모래주머니가 들어있는 보관함이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걸어둔 새끼줄]

눈의 하중으로 가지들이 꺾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같네요.



[아카렌가 청사 정원에 쌓인 눈]

청사 정원에는 제설이 완료된 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설작업이 완료된 거리]

차도의 눈을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나면 도로 한켠에 눈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열선이 깔린 보도]

열선이 깔린 보도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도 합니다.

## 액을 쫓는 날 '세츠분'

예전에 일본의 복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월대보름과 비슷한 날인 '세츠분'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날짜는 보통 입춘 전날인 2월 3일이지만, 올해는 124년만에 2월 2일에 세츠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월대보름날에 밤과 땅콩, 호두 등을 먹으며 액귀를 쫓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고 이야기하며 뿌린 콩을 자신의 나이 수만큼 먹는다고 합니다. 마트에서도 연말연시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세츠분 준비 모드로 돌입하는데, 콩을 구입하면 도깨비 가면을 덤으로 주는 마케팅이 특징적입니다.



오곡밥과 나물을 먹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 날에 '에호마키'라는 두꺼운 김밥을 먹습니다. 에호마키를 먹을 때에는 해당 년도의 운기가 좋은 방향 (올해는 남남동쪽)을 바라보고, 먹는 동안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며, 한 번에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최근에 코로나 예방 수칙으로 화두가 된 '묵식' (식사 중에 이야기 하지 않기)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이 날의 인기 음식은 에호마키라고 할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기획 상품으로 미니사이즈 롤케익도 팔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홋카이도 국제교류페어 (부산DAY·제주DAY)



3월 8일부터 이틀간, 삿포로역전도로 지하보행공간(지·카·호)에서 홋카이도의 자매우호 제휴지역 등을 소개하는 홋카이도 국제교류페어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 외에도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의 우호 지역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부스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요와 명소, 향토음식 등에 관한 정보들과 함께 작년 10월 삿포로 도료고등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부산시민들에게 보내는 코로나 극복 응원메시지'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우호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방문객 분들께 부산과 제주도의 관광 팸플릿, 한국 설 명절 음식 레시피북을 배포하였습니다.

## 홋카이도-서울특별시 우호도서 교류

3월 15일에는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의 우호제휴 10주년 기념 '우호도서' 기증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두 지역에 관한 도서들을 상호 기증하는 도서교류 사업을 통해 홋카이도는 서울특별시에 우호도서 119권을 기증하였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105권의 우호도서를 기증 받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홋카이도립 도서관에  
전시중 ☺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